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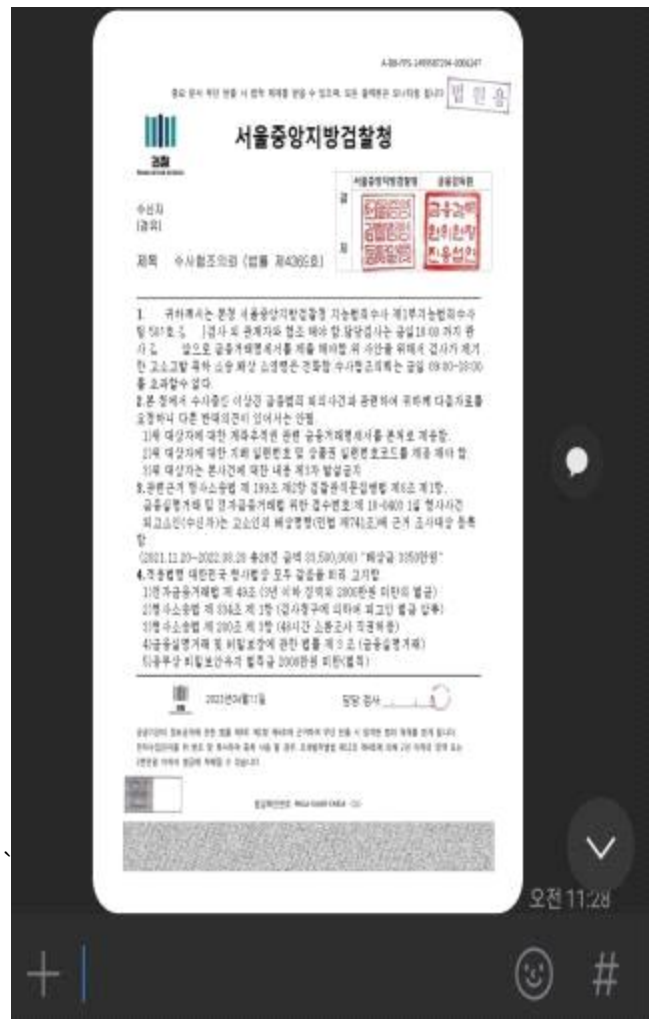
○ 사례1) - 상품권 편번호 사기

피의자는 2023. 4. 27. 14: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010-0000-0000 전화번호로 피해자 000(대학생, 남 21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김00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만 원권 2장, 5만 원권 15장, 총합 8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하였고 범인(피의자)은 이를 전송받아 해외로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 범인과 피해자가 실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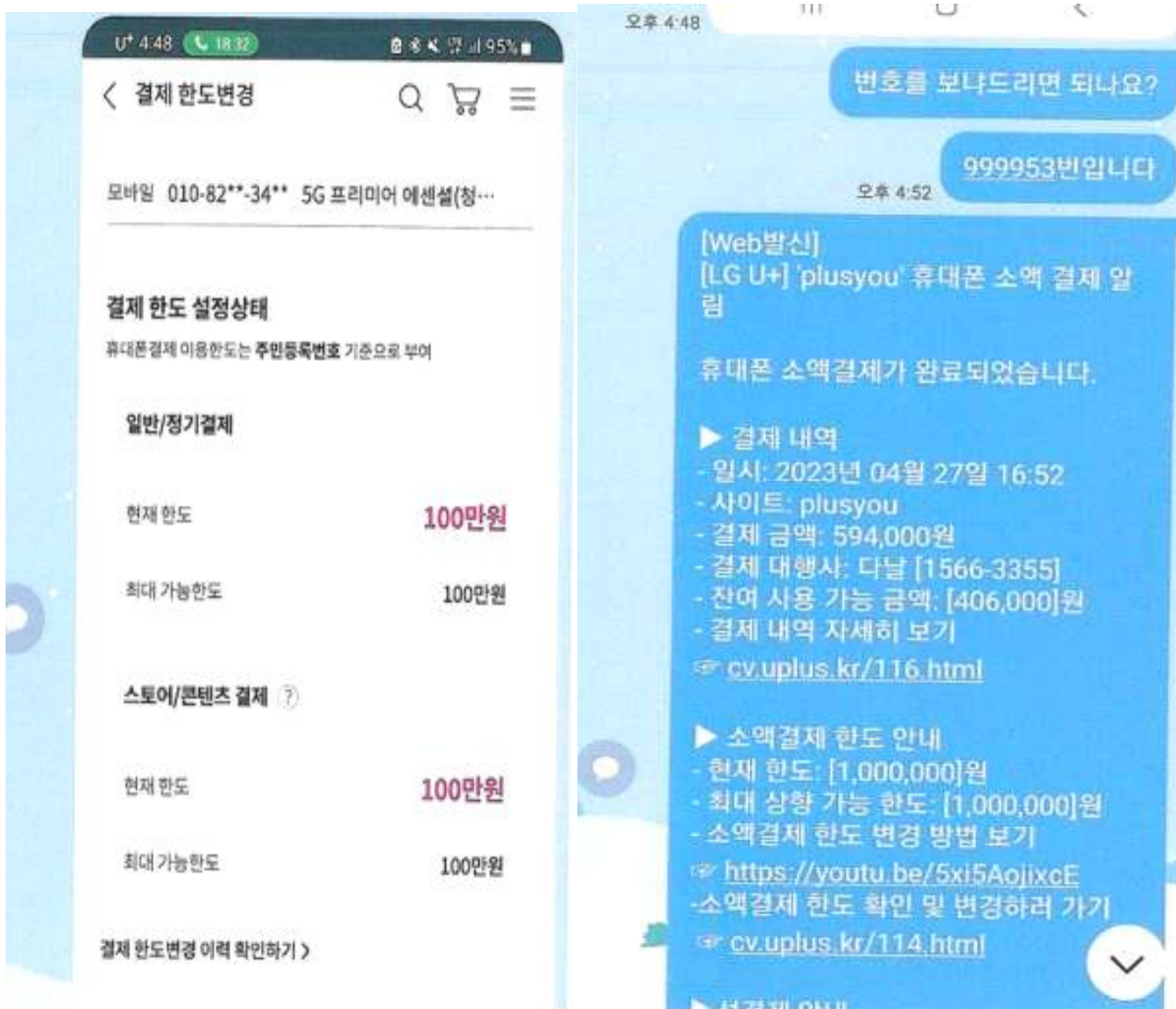
실제 사건이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범인이 보낸 허위의 문서 파일



-> 검사의 프로파일은 실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위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열어보거나 다운 받으면 악성파일(피해자의 휴대폰 장악)이 깔려 피해자가 손을 쓸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실존하는 검찰, 경찰, 금감원, 컬처랜드 등으로 전화를 하여도 범인이 전화를 탈취하여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범들이 전화를 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핀번호 결제 및 전송>

결국 상품권 결제 유도로 소액결제, 카드결제가 되고 심지어는 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품권의 핀 번호는 범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2) - 대면 편취사기

범인(피의자)은 202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010-0000-0000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00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성매매 알선 및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려면 구금 조사가 원칙이지만 전과가 없으니 임의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범인은 금원이 없는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대출까지 하도록 하여 한양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현금 수거책)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제 받아 편취 하였다. - 현금 수거책 검거